

와이너리와 가족의 근원



영화로 맛보는 와인 ⑦ 구름 속의 산책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 경건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영화 '구름속의 산책' 캡처

새벽에 서리가 내리자 와이너리 전체에 비상종이 울린다. 포도수확을 코앞에 두고 서리는 안될 일. 서리가 속까지 들기 전에 와이너리의 모든 사람들이 총 동원되어 포도살리기에 나선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 여기서 나온다. 포도나무들 사이사이에 불을 피우고, 커다란 날개같은 것을 팔에 달아 나비처럼 위로, 아래로 움직인다. 불의 열기가 포도에 전해지도록. 밤샘 노력에 포도에 내린 서리도 녹았지만 꿈쩍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영화 '구름속의 산책'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를 배경으로 한다. 와이너리의 이름이 바로 '라스 누베스'. 구름이란 뜻이다.

시기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다. 참전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 폴 셔튼은 초콜릿 장사에 나섰다. 빅토리아를 만난다. 빅토리아에게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죽여버린다'는 아버지가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해 곤란해하는 빅토리아를 위해 풀은 가짜 남편 역할을 자처한다.

갑탄이 나오는 풍광과 달달한 로맨

스도 좋지만 와인애호가 입장에서는 포도수확부터 시작해 발로 포도를 으개는 모습 등 전통적인 와인생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특히나 어느 와이너리를 찾아가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만 봐야하는 지금과 같은 때는 말이다.

와이너리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날은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다. 특히 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땅의 소산물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빅토리아 가문은 포도 으개기에 앞서 경건한 의식도 빼놓지 않는다.

큰 통 안에는 수확한 포도가 잔뜩 들어있지만 포도 역시 아무나 밟을 수 없다. 결혼한 여성만 가능하다.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면 통 안의 여자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때론 매혹적으로 춤을 추며 포도를 으갠다. 포도즙을 맛보고는 '훌륭하다'는 한 마디가 나와야 비로서 포도수확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난다. 한 개의 램프에서 시작된 불씨는 와이너리를 순식간에 모두 다 태워린다. 빅토리아의 낙심한 가족들에게 풀은 포도나무 뿌리를 가져온다. 땅 속으로 깊이깊이 뻗어있던 포도나무 뿌리는 타지 않고 살아있었다.

만 옛날 빅토리아 집안이 스페인에서 멕시코,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면서 몸이 지닌 것은 이 포도 뿌리 하나가 전부였다. 와이너리의 모든 포도 나무는 이것에서 비롯됐다. 그냥 포도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와이너리와 가족의 근원인 셈이다.

고아였던 폴 역시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이 자네 생명의 뿌리야. 자네 가족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네 이 땅과 가족들에게 신의 사랑으로 엮어질걸세. 심어보게. 자랄거야."

/smahn1@metroseoul.co.kr

아모레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출시

약산성으로 피부 밸런스·건강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워터' 피부장벽 강화

아모레퍼시픽의 클린 더마 브랜드 순플러스(SOON+)는 '5.5 밸런싱 라인'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5.5 밸런싱 라인'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pH 5.5의 약산성으로 피부 균형을 맞춰,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특히, 약산성 포물라의 클렌징폼, 스킨, 로션 3종으로 구성된 단 세 단계만으로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워터'는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촉촉하게 피부 결을 정리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에멀전'은 스쿠알란과 징크를 더해 수분 증발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해 촉촉함을 더한다. '순플러스 5.5 클렌징폼'은 쫄쫄하면서 풍성한 거품으로 약산성 저자극 세안을 개운하게 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제품은 공통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워터'를 함유하고 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오랜 기술력으로 검증된 식물성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외부 자극으로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아모레퍼시픽

부터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데다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 또 건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알란토인'과 자극 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는 '레드베리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보습, 진정,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웹툰 속 과자가 현실로... GS리테일, 유미의 세포들 '세포깡' 출시



모델이 출출세포 이미지와 유어스출출세포깡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GS리테일은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상상 속 과자 '세포깡'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세포깡'은 웹툰 캐릭터 중 하나인 '출출세포'가 즐겨먹는 간식이다. GS리테일은 '유어스출출세포깡매콤달콤(이하 세포깡매콤달콤)'과 '유어스출출세포깡간장마요(이하 세포깡간장마요)' 2종을 선보였다. 세포깡매콤달콤에는 매운맛과 달콤한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떡볶이소스맛 양념을 사용했고, 세포깡간장마요는 단짠(달콤+짭짤) 맛을 담았다. /김민서 기자

제주 바다 옆 쓰레기 찾기



용담 해안도로의 도두봉에서 주운 쓰레기를 들고 있는 박원정 러쉬 캠페인팀 이사. /김민서 기자

바다새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게워 먹이고, 거북이는 의식도 없이 비닐을 집어 삼킨다. 우리가 무심코 쓴 일회용품이 무자비한 속도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페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해양생물은 267종이다. 바다새, 바다거북, 고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생물들이 쓰레기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 Pick! 친환경 특집

Ro's #PlasticGrab

◆'자발적 참여 독려'... 러쉬의 'Ro's #PlasticGrab challenge'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플라스틱 줄이기'는 전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로 떠올랐다. 각국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람들의 자발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친환경 용기를 제작하고, 공정 과정을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가운데 러쉬는 물건을 파는 과정을 넘어, 진일보한 환경 캠페인을 실행한다. 바로 Ro's #PlasticGrab challenge다. 기존에 진행된 '플라스틱 없는 7월(#PlasticFreeJuly)' 캠페인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러쉬 측은 "이 캠페인은 한국에서 '줍깡', '플로깡' 등으로 잘 알려진 쓰레기 줍기 운동 '트래시태그(#trashtag)'라며 "러쉬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8~10월 동안 쓰레기 60톤을 줍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제주, 가려진 쓰레기들

메트로신문은 러쉬와 함께 지난 7월 26일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 해안의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줍는 것을 목표로, 박원정 러쉬 캠페인팀 이사, 윤예진 러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PR팀 대리, 자원봉사 단체 세이브 제주 바다 한주영 대표를 포함한 4명이 모였다.

쓰레기 줍기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2시간 남짓. 이날, 제주의 날씨는 폭우가 내리친 서울과 달리 화창했다. 비가 오는 것보다 해가 뜨는 게 활동하기엔 더 좋지만, 폭염이 예고된 만큼 활동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걱정이 들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용담 해안도로의 도두봉 끝자락이었다. 언뜻 내려다보기엔 쓰레기가 없었지만, 아래로 향하니 돌



용담 해안도로의 도두봉 끝자락에서 주운 쓰레기들. 플라스틱과 비닐 등 다양한 쓰레기가 눈에 띈다. 30분 남짓 만에 주운 쓰레기 무게가 눈에 띈다. /김민서 기자

사이사이에서 숨은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한주영 세이브 제주 바다 대표는 "지금쯤 쓰레기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담배꽂초와 병뚜껑, 비닐 등 갖가지 쓰레기가 켜켜이 쌓여있었다. 바닥에 놓고 펼쳐보니 심각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채리티 팟'은 계속된다

세이브 제주 바다와 러쉬가 인연을 맺은 것은 '채리티 팟' 덕분이다. 이 제도는 러쉬가 '채리티 팟'의 판매금 전액(부가세 제외)을 사회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세이브 제주 바다는 제주도 정화 작업과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봉사 단체다. 러쉬의 채리티 팟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주도 해안가의 정기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정 러쉬 이사는 "채리티 팟 판매를 통해 환경, 동물보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민간 시설 및 비폭력 행동 단체들에게 기부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64개 단체에 9억3400만원을 후원했다"며 "비영리 영세 단체들의 힘을 믿기에 후원 단체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서 발생한 결실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세이브 제주 바다. /러쉬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